

공원 탐방

9 푸른길 공원



백운고가 진입 바로 전 푸른길공원



푸른길을 걷고 있는 운동복 차림의 주부들



도로나 주택·상업시설보다 낮게 배치된 푸른길공원

# 세면대 고장 방치... 차도보다 낮은 길 매연 노출

## 5 백운고가~ 동성중 구간

남광주교가 도로를 지나 백운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푸른길공원은 그저 도보 기능에만 충실한 느낌이다. 주로 운동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의 주부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지나며, 가끔 주변에 설치돼 있는 건강기구에 오른 이들도 있다. 푸른길공원이 어떠한 형태로 유지 관리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도심의 폐선부지를 어렵사리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 다수의 참여를 통해 탄생한 소중한 공간이 광주의 대표자산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 단순한 '건강'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도시의 여기 저기를 연결하고, 그 주변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며, 인근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백운고가 바로 앞까지 이어온 푸른길은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2곳을 지나야 한다. 제대로 된 인내가 없어 눈 대충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 50m 이상의 구간이 비어있는 셈이다.

대남로 이전까지는 동네 주민보다는 운동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하는 볼록정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구간부터 주변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장산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자주 눈에 들어오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점심 후 저녁시간까지 시간이 빈 전업주부들이 2~3명씩 짝을 이뤄 푸른길의 주인이 됐다.

박모(여·45)씨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만 어쩔 때보면 너무 시설만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용자의 성향이나 이용빈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시설관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 곳곳 담배꽂초 수북 시민의식 실종

## 즐비한 노점상 일정수준 제어 필요

라고 말했다. 이 구간은 푸른길이 주택지와 차도보다 낮게 배치돼 있다. 따라서 매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수목 식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 구간도 여느 구간과 같이 인공시설물만이 과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의 바닥재질은 우레탄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다. 노래 반수, 세면대 등도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다. 몇몇 초등학교들이 손을 씻으러 왔다가 물이 안 나오자 화를 내며 가는 모습도 보였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푸른길공원의 조성과정과 광주 도심철도의 역사, 근대화 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잘 꾸며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수 없이 흩어져 있는 담배꽂초였다. 푸른길공원 전 구간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담배를 피우고 꽂초를 바다에 버리면서 공원의 질까지 하락하고 있었다.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희망근로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항철(67)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푸른길공원을 거닐며 청소하고 있다"며 "쓰레기 투기가 한계를 넘었으며 좋은 공원을 이용자들이 망치고 있어 아깝다"고 말했다.

이 구간을 걷다 보면 가끔 이 길이 도심철도였다는 것을 보여주 기라도 하듯 건물벽 표시가 남아 있지만 별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주변 아파트와 상업시설과 같이 섞이고, 차도에 별도의 보도가 없어 주민들에게 푸른길공원은 평범한 걷는 길이 된다. 길 중간 중간

이 끊기고 차가 지나며 그 주변에는 언제처럼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다.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생계를 잇기 위한 노점들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 또는 조화시킬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는 물론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이들 노점상을 일정 수준 제어할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한참을 내달린 푸른길공원은 남구 진월동 동성중 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아무런 안내도 표시도 없이 길은 없어지고 대신 삭막한 건물과 공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광주역 인근에서 그 시작점을 화려하게 알렸지만 끝은 초라했다. 분수나 대리석 장식으로 치장했지만 푸른길공원이 왜 여기서 끝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5차선에 걸쳐 푸른길공원 7.9km를 살았다. 광주시와 시민들은 도심철도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았으나 정작 공원의 가꾸고 관리하는 더 중요한 의무는 외면해버렸다. 과도한 시설물들은 푸른길이라는 의미를 퇴색하게 했고 마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이 만들어진 듯한 착각이 일 정도였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약간의 인공구조물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는 공원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용자들은 도심 속 걷는 길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택이나 상업시설에 활력을 줄 정도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공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시가 변화할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푸른길공원이 광주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선 이용자들의 인식과 공원을 대하는 태도의 개선, 광주시와 전문가그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관리시스템의 구성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형석기자 chadod@kwangju.co.kr



도심철도였음을 알려주는 건물벽 표시



남구 진월동 동성중 앞 푸른길공원의 끝지점



아무런 표시 없이 시설만 설치된 공원 끝지점

## 도시제안

### ■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보고서

이번 일본 연수를 마치고 추후 공공기관의 연수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첫째는 교육 참가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참가자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운전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1년에 4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각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위별로 묶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서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소속이 틀리다보니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도 택시와 버스는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동시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구성이다.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자료집, 명찰, 필기구 등을 비롯해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 MK택시를 비롯한 국토운수국의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받아서 자료집으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들어보자는 식의 교육이 아닌 이상 복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명찰, 필

### 일본의 교통문화 바탕은

### 나보다 남 먼저 생각하는 '배려'



일본 MK택시의 신입사원 교육 모습

기 도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각각의 사진을 찍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별로 구성을 하여 역할을 나눠 주었으면 한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통현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동기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아쉬운 점은 실제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MK택시에서 간단한 브리핑과 신입사원 고객응대 훈련을 참관한 이후 실제 MK택시를 타고 일정구간을 이동하여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였다면 훨씬 빠르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들어 오지 않았을까 한다.

짧은 연수기간 결론은 '배려'라고 본다. 오사가 도심 교차로는 물론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량억제막(블라드)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블라드가 없으면 당연히 차들은 자연스럽게 보행자도로 위로 올라와서 주정차를 할 것이지만 일본 운전자들은 작은 불법도 장애 인이나 걷는 이에 불편을 줄 것을 먼저 우려하고 있었다. 또 불법 주정차도 없다.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지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된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일 정규격의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도로에는 주차차량이 없다. 누군가는 차량을 주차하고 이를 단속하고 서로의 옹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10년이 걸리든 아니 100년이 걸릴지라도 누군가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면 함께 시작해보았으면 한다. 김광훈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심리번호 2112073